

황숙주 순창군수 등 11명 고발돼

지난해부터 SNS에 황 군수 홍보글 130여 차례 게시하고 공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숙주 순창군수 등 순창 군청 공무원 11명이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 군수에 관한 홍보글을 게시하고 공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이들을 고발한 주민 A(59)씨는 "순창군 공무원들이 군수의 활동과 업적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했다"며 "황 군수 홍보글을 공유한 이들은 모두 순창지역 면장이나 계장 등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황 군수의 업적 등을 130여 차례에 걸쳐 공유하는 등 규정을 무시했다"며 "오래도록

노동계에서 활동하며 공무원들의 비리를 봤는데,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그냥 넘길 수 없어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설명했다.

황 군수와 공무원들의 위법 여부는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전처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재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9시10분께 자택에서 이혼한 아내 B(당시 36세)씨와 재결합과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직후 A씨는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으나 다리에만 상처를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자살 시도 등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살이 실패하게 되자 구급대원에 범행을 밝히고 피해자 시신 장소를 알려주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문 열린 차 훔친 20대 구속영장

시정 장치가 돼있지 않은 차에서 금품을 훔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2일 특수절도 혐의로 신모(24), 하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전 3시48분께 고창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00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시50분께 읍내리 한 주차장에서 SMB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기도 했다.

조사결과 전과 10범인 신씨는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주시청 1층 로비에서 지난 1963년 전주종합경기장의 탄생과 55년간의 역사를 간직한 기록물과 종합경기장에 담긴 시민들의 추억을 엿볼 수 있는 '제3회 전주 기록물 전시회'를 한다.

전주종합경기장 55년 기록과 추억 모았다

2일~13일 시청 로비에서 '전주 기록물 전시회'... '경기장, 뜨겁게 울리다' 주제

100년 후 전주의 보물이 될 미래유산인 전주종합경기장의 탄생 과정과 기록, 전주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주 기록물 전시회가 열린다.

시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주시청 1층 로비에서 지난 1963년 전주종합경기장의 탄생과 55년간의 역사를 간직한 기록물과 종합경기장에 담긴 시민들의 추억을 엿볼 수 있는 '제3회 전주 기록물 전시회'를 한다.

'경기장, 뜨겁게 울리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앞서 지난 해 실시한 전주종합경기장 관련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카드형 기록물을 중심으로 전주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한 종합경기장의 역사적 발자취와 전주의 특색이 담긴 다양한 기록물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수집 기록물의 성격에 따라 △울림 △함성 △감동 △그리고 전주의 4가지 테마로 재구성,

스토리텔링형 전시로 기획했다.

전주종합경기장 기록물은 전주시민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경기장의 모습을 사진과 문서, 기념품, 구슬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당시의 감동과 함성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무형의 기억을 유형의 기록으로 전환해 전주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펼쳐진 각종 행사와 축제 등 과거의 유의미한 사건들을 현재로 소환해 미래에 전할 유산으로 가치있게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여 년의 발자취를 연대기로 구성한 '울림' 섹션에서는 전주종합경기장 신축 과정을 담은 기록 앨범 전시가 눈길을 끈다.

또한 '함성' 섹션에서는 전국체전과 쌍방울레이더스 야구경기 등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각종 행사 기념품과 사진이 소개된다.

'감동' 섹션에서는 1960년대 종합경

기장 건립 자금 운동에 함께한 시민들의 기억이 관련 기사와 함께 전주종합경기장을 기억하는 이들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끝으로 '그리고 전주' 섹션에서는 전주의 역사를 담은 다양한 민간자료와 과거 전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효자상소문, 호구단자, 금암동 공동소유 흔적복과 보관 상자, 관암마을 생산 문화 및 1960년대 이후 각종 영수증 일괄자료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제61회 전국체전 준비사업 준공식 테이프킹팅 기구 △전주종합경기장 기공식 팸플릿(1979년 10월 19일) △종합경기장 각종 행사 참여 사진 및 활동 자료 △전주부인리 파원기 초(全州府 人吏 把任期 抄) 1850년대(추정) 문서 △전주이씨 족보(14권) 등 책·문서·사진·박물류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전시된다. /채규남 기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희망자 모집

전주시, 10일까지... 생계급여 수급 15세~34세 대상

전주시가 저소득층 청년들의 탈수급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만 15세~34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희망자를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시는 올해 총 105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본인의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과는 달리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 청년들은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 매월 최대 10만원을 소득공제하면 최대 48만 5000원씩 추가 적립된다. 대상자들이 꾸준한 근로활동을 통해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2106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합산한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은 신청서와 소득신고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별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공유경제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전주시, 10일까지... 3개 내외 단체 최대 300만원 지원

전주시가 공간과 물건, 재능, 지식 등을 이웃과 나눠 쓰는 공유경제 활성화로 반값생활비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공유경제 사업을 공모해 3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해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총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경제·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민간 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공간·물건·정보 및 지식공유 등을 통해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가 수 있는 사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식료품, 생활용품 나눔, 장난감 대여, 아늑바다 정터 운영, 공간 공유 등 △물건·식품 분야 △공간 분야 △재능·경험 분야 △지식·정보 등 분야의 공유사업을 찾을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와 공유사업 실적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 시 사회적경제지원과(현대해상 5층)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담당부서 검토, 시공유촉진위원회 심사와 컨설팅 등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다. /채규남 기자

서울 방배초 교무실서 초등생 인질극

서울의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서 2일 오전 11시43분께 양모(25)씨가 초등생 한 명을 인질로 삼는 사건이 발생해 약 1시간만에 경찰에 제압됐다.

피해 초등생은 의상이 없고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학교측에 따르면 양씨가 오전 11시30분께 졸업증명서를 떼기 위해 왔으며 정문을 통과해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무실에 들어온 양씨는 학생 6명중 1명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1시간여를 대치한 끝에 양씨가 간질 증세를 보이자 낮 12시43분께 경찰이 이 틈을 타 양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양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인질극을 목격한 5명의 학생은 내일(3일)부터 심리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씨가 징정되고 나서 교내로 진입한 경위와 자세한 범행동기 등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